

한국불교 텍스트 읽히는 영역 '시급'

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서 제기

"영역된 한국불교 텍스트가 세계 불교학계에서 읽히기 위해서는 고급영문의 사용은 물론 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한 완벽한 번역으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한국학'을 주제로 22일 정문연 대강당에서 제10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불교 분과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는 "한국불교 텍스트의 영역(英譯)에서의 제문제와 도전-원효를 중심으로"에서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일지라도 읽히지 않는" 영문으로 번역했다면 도서관의 서가(書架)를 채우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가 '평가 절하'된 것은 가용(價用)한 정보의 제공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번역과정에서 고급 영문을 구사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 불교학자들이 영어 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불교 연구자들이 불교 텍스트 영역에 있어 갖춰야 할 기본 시각으로 '고급적

시각의 탈피'를 강조한 버스웰 교수는 "단약 '한국적' 특징만을 강조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전통을 사이의 단연하고 의미 있는 상승작용과 연관성 중 많은 점들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효 등 한국불교 저술가들의 사상을 한국불교 내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파악해야만 올바른 번역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또 버스웰 교수는 불교 텍스트 영역에 있어 △서론을 통한 텍스트의 의의·구조·문제·해결 등의 개관 상술 △상세한 주해와 경·론·소인용의 의도를 밝히는 해석학적 구조 등 '학문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식물 갖추고 다언어(多言語)를 구사할 수 있는 대가(大家) 한 사람에 의한 번역보다는 하나의 텍스트의 완벽한 번역을 위하여 여러 학자가 협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불교의 학적(學的) 정초작업을 위한 몇가지 제언"으로 논평에 나선 이종철 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서구 불교학자들의 학자(忠實) 중 한국불교 학계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폐쇄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적"이라며 "한국불교의 '찬란한 고립'의 허구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만의 고유한 '한국적' 불교를 찾으려고 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버스웰 교수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한국불교 학계 일각에서 '불교학이 아닌 종학(宗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소아병적인 연구경향이 한국불교학계의 확실한 연구성과에 걸맞지 않음에도 지배적 기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문화학적인 기초작업에 좀 더 비중을 두어 동아시아 문화권에 흠뻑 젖어 한국불교 관계 문헌을 수습, 전체 원문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제17차 한국학 자료해석의 제문제 Problems in Interpreting Korean Studies Materials

"한국근대불교 시작 1876년 개항부터"

김경집씨 주장

한국불교사의 시대구분을 조선 왕조사(王朝史)에 따른 종속적인 양상을 벗어나 불교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적인 특징으로 구분한 근대불교연구회가 처음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서원에서 출판된 김경집씨(동국대 강사)의 <근대불교사연구>가 그것.



김경집씨

<근대불교사연구>는 기존의 근대불교사 연구서가 근대불교의 시작을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금지 해제 해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1876년 개항부터 근대불교의 시작이라고 보고, 일제강점기까지의 근대불교 동향을 서술하고 있다.

제1장 근대불교의 기원과 전개에 이은 제2장 허금전(解禁前) 신앙경향과 불교인의 활

동에서는 △거사들의 불교신앙 △이공인의 개화활동을 밝히고 있다. 또 '도성출입금지의 해제와 추이' '해금후 승단의 신행결사' '개혁신상의 대두' '계승' 등 근대불교 태동기의 역동성을 펼쳐 보이고 있다.

김씨는 "근대불교사연구에 소외돼 있는 1895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은 불교계가 개화의 시대를 맞아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라며 "이 시기에 불교계의 역동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 도입된 서양 문물과 사상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보조지눌의 '진심직설' 본질과 실존의 합일"

이창구씨 논문발표

보조지눌(1158~1210)의 <진심직설(眞心直說)>에 나타난 진심과 오수(悟修)의 구조를 "수행의 성숙도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眞心驗力)으로 본질과 실존의 완전합(完全合)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힌 논문이 발표됐다.

27일 보조사상연구회(회장 현호스님) 월례 발표회에서 이창구씨(전북대 철학과 강사)

는 <진심직설>을 통해서 본 진심과 오수의 구조를 통해 <진심직설>에서는 돈오나 점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선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과 실존의 괴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또 "돈오와 점수를 통해 본질과 실존이 완전합일된 경지가 수행의 완성이자 성불의 경지임을 밝히는 것이 그 기본 구조"라고 밝혔다.

<진심직설>에서 처음 강조되는 진심의 바른 믿음(眞心正信)은 본질과 실존이 괴리를 타파하고 합일된 돈오로 이해하며, 바른믿음 이후에 강조되는 수행의 정행(正行)과 조행(助行)은 점수로 이해된다.

김정은 기자

태국 방콕에 백만명수용 사원건립

타이어리 WFBY회장 방한 소식전해

'불교의 나라' 태국에 1백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원이 건립되고 있다.

제17차 전국불교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계불교청년우의회 회장 타이러리 회장은 "태국정부가 현재 방콕 시내에 명상수련을 위한 대규모 담마가야 사찰을 건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마가야 사찰은 240여만평 규모의 대지에 지상 2층 건물로 세워지며, 세계 각국에서



타이러리 회장

○제17차 불교대회에 참가한 타이러리 회장이 태국정부의 거대불사를 전했다.

○제17차 불교대회에 참가한 타이러리 회장이 태국정부의 거대불사를 전했다.

모여든 백만명의 불자들이 동시에 명상할 수 있는 중앙명상센터를 비롯, 각종마다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99년 완공될 담마가야 사찰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명상수련반을 운영하고 매일 4월 초부터 주요 소식 중에는 방정인 룬과 담마다에 스님의 명상특강반을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종욱 기자

국제소식

달라이라마 "단식투쟁은 반 불교적"

티벳 승왕 달라리 라마가 20일 핀란드의 국영방송에 출연해 "단식투쟁은 죽을 길이고 반(反)불교적"이라며 현재 미국 워싱턴과 인도 달람살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티벳승려의 단식투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2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를 방문한 달라리 라마는 클레스 엔더슨 문화장관의 후원으로 마련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지난 40여년동안 10만여명의 티벳 망명

자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왔던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외국에서 금식장하고 있는 티벳문화와 종교를 지켜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달라리 라마는 "임시회화를 만들어 2년 안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선거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면 나는 승려로서 수행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 책자내용의 요점설명

-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술
- 2) 양택풍수측면 :
 - ① 사업이 잘 안될 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 때
 -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 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갓기를 간절히 원할 때
 -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 때
 -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영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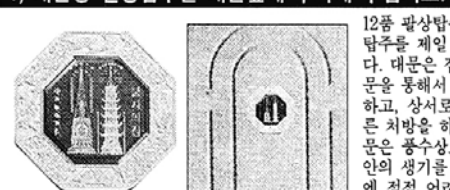
- ◎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람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 불자들에게는 본 책지를 요약한 카달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들에게서는 다음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 규격 : 8cm×8cm · 가격 : 60,000원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재앙하여 집안의 상서로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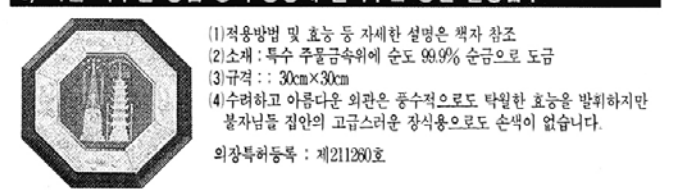
·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 규격 : 5cm×5cm · 가격 : 60,000원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에 지니고 다니면 운전중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미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찰보러갈때, 관제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목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히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인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관에 맞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사(名士)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방위를 각방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관례의 관각형안에 음양의 불합치나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 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 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 규격 : 30cm×30cm
(4)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들에게는 고금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정등록번호 : 제21128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심지어 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곳의 운(運)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문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성지관음회